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재영토화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생애사 연구*

김영순** · 최수안*** · 김명희**** · 권요셉*****

〈 목 차 〉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연구방법론
4. 재영토화 과정
5. 결론

1. 서론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김영순 소장)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만 3년에 걸쳐서 200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의 생활세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글로벌시대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총서 1~11’(이하 토대연구)을 연속 출간하였다. 다문화융합연구소의 사회통합총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활세계는 주체로서의 자기와 동일 세계의 주체로서의 타자가 함께 구축한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생활세계의 새로운 타자를 만나면 생활세계는 상호조정 되고 새로 만들어진다(김영순 외, 2019). 고정된 두 세계가 두 주체를 통해서 만날 때, 서로 다른 생활세계에 속해 있던 두 주체의 상호조정이 없으면, 해당 주체에게 있어서 두 생활세계 중 한 생활세계는 사라지는 것이다. 생활세계는 주체로서의 자기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므로, 생활세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주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토대연구의 후속 연구로, 토대연구를 위해 진행된 전자자료 중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만을 재코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제1저자, 인하대학교 교수, kimysoon@inha.ac.kr

*** 공동저자,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hsu.choi@gmail.com

**** 공동저자,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inha.mhk@gmail.com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연구교수, josehg@inha.ac.kr

지속 가능한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사회를 위해서는 두 생활세계가 상호조정 되고 새로 형성되는 실천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의 많은 현장에서 이러한 상호조정에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두 생활세계 사이의 이동의 문제를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과정으로 이해하였고, 영토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종합의 방법으로 접속, 이접, 통접을 상정하였다(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1977, 김재인 역, 1997:28~60). 접속은 두 생활세계가 등위관계로 이어지는 종합의 방법이고 이접은 서로 이질적인 것이 만나 다른 한쪽이 포기되는 종합의 방법이며 통접은 서로 이질적인 것의 여러 요소 및 요인들이 결합되는 종합되는 방법이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은 이러한 상호조정 및 종합의 실패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장이다. 통계청 「2020년 혼인·이혼통계(2021.3.18)」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다문화 이혼 가정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8.7년이다. 2010년 다문화 이혼이 **4.7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많이 상승하였지만, 한국인 이혼 가정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이 17.4년인 것에 비교하면 다문화 가정에서의 결혼생활 지속성은 여전히 현저히 낮다. 더불어 2021년의 외국인과의 이혼율은 6.2%이며,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4.3%,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가 1.9%이다¹⁾.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인 경우의 이혼이 2배가 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의 이혼의 이유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 후 이혼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의 재영토화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 후 삶에 대한 욕망과 욕망실현의 방법을 분석했다. 이러한 탐구와 분석 연구는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형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결혼생활 기간이 짧은 **다문화 가정**에 직면한 과제를 찾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이러한 탐구와 분석을 위해 제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와 이혼과정에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연구문제 2.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재영토화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논의

2.1.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국제이주에 있어서 여성의 이주는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nt)’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주의 여성화란 이주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뛰어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주 여성들이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취급되던 돌봄 노동, 즉 가사, 육아, 환자 봉양 등과 관련된 노동을 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김현미, 2006).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림자

1) 통계청, 이혼종류별 외국인과의 이혼, 2022-03-17년 갱신.

노동은 저개발 국가의 여성들의 차지가 된다. 그림자 노동은 상품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Ivan Illich, 1982). 여성들의 노동이주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허락되는 경우,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이주가 용이한 결혼이주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주하는 경향이 높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주에 대한 규제가 심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이주를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김현미, 2006). 따라서 결혼이주는 세계적 차원의 불균등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연관된 ‘이주의 여성화’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이주의 순환의 흐름을 생산한다(김현미, 2006; 최병두 외, 2017; 황정미, 2009). **한국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결혼이주는 노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이주와 영구적인 거주를 바탕으로 하는 결혼을 매개로 하는 이주의 경계가 중첩되거나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Piper and Rocas, 2003; Freeman, 2011)에서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결혼이주의 경우 일반적인 노동이주보다 사회맥락적 측면에서 더 많은 상호 영향관계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이주는 ‘개인’만의 이주가 아니라, 그가 거주했던 나라의 경제 및 사회역사적 맥락, 문화적 배경, 경험과 기억 등을 가지고 이주하게 된다. 그들은 새로운 공간인 지금-여기(erehwon)²⁾(김은주, 2016)에서 유목적 주체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협상하고, 생성해 나간다. 여성들은 종족집단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언어와 문화적 상징을 전수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 운반자(cultural carriers)’(Vasta & Castles, 1992)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국민의 배우자’이자 ‘국민의 어머니’로만 간주되며(이은아, 2012; 최연숙, 2021), 이주국의 가족 규범을 비롯한 사회규범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타자로 본질화한다(김순남, 2014; 김이선, 2010).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블랙박스³⁾ 안에 가둔 채, 이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고 연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최병두 외, 2017). 이주의 여성화라는 거대한 글로벌 현상 속에서 유목적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지나는 존재적 위치와 삶의 다양성, 정체성 협상, 인정투쟁과 같은 삶의 양식들은 가려지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은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가짜 결혼’으로 의심받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문경연, 2011). 이혼은 결혼이주여성들과 같은 취약성을 가진 개인들에게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김선숙, 왕경수, 2021).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 구성 초기부터 가정해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경험한다. 먼저 이들이 한국으로

2) ‘Erehwon’은 사무엘 버틀러가 ‘no where’의 음절 순서를 뒤바꾸어 만든 조어로, <어디에도 없음>이자 <지금-여기>를 의미한다. 들뢰즈가 의미하는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위치를 바꾸고 위장하며 언제나 새롭게 재창조 되는 ‘지금-여기’”를 강조하는데, ‘Erehwon’은 이러한 공간적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다(김은주, 2016: 18)

3) 집중적 네트워크가 하나의 행위자나 대상으로 단순화되어 접혀진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블랙박스 속의 복합적 결합과 동맹의 행위자-네트워크는 보지 못하고 외부의 입/출력에만 의존하는 대상으로 취급하게 된다. 최근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정책’ 등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최병두 외, 2017: 219)

의 결혼을 택하게 된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한국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중개업체의 정보만을 믿고 한국행을 택하지만 실제로 맞닥뜨린 결혼 생활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최미경, 2014; 최호림, 2015). 이로 인하여 결혼생활 중 경제적 갈등과 가정 내에서 가족으로서의 일원이 아닌, 가사도우미와 같은 위치로 전락하거나 남편의 양육에 대한 무관심과 아내 가족 문화에 대한 일방적 무시를 경험한다. 또한 언어문제와 양육의 어려움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 김오남(2006)은 국제결혼부부의 주요 갈등의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 문화적응스트레스, 보수적인 **성역할태도**, 부부 간 권력 불평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경우 갈등이 더 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히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숙도가 높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수록 이혼에 대한 의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이계승, 2011).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정책적 방안들은 미흡한 상황이다(김희주, 2018). 가정해체 이후의 상실감과 새로운 삶에 대한 자립이라는 이중과제를 수행해나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더불어, 한국 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한계가 더 해져 그 어려움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김희주, 2018; 이현주, 2013).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같은 법제도가 존재하지만, 한부모 이주여성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가정해체를 경험한 한부모 이주여성은 여전히 법과 제도 및 경제적 배제를 경험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2. 재영토화를 위한 종합

들뢰즈와 가타리는 타자들을 다수와 소수로 구분한다. 다수는 평가의 기준이 되며, 권력과 지배를 갖는 데 반해, 소수는 다수의 기준 밖에서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생성과 변화 중인 창조적인 존재로 설명하였다(탁양현, 2018: 158).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란 누구인가라는 고정된 정체성에 대한 물음보다 소수자 주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주체에 관심을 둔다. 여성들이 노동을 위해 이주하는 것은 이주를 빈곤과 기타 걱정거리들을 극복할 전략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녀의 행위성은 빈곤으로부터 가족을 지킬 필요성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여성들은 일하려 나가도록 강요당하고, 다른 한편으로 현존할 것을,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존재할 것을 강요받는다(허라금, 2011: 201). 특히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에게는 보다 잘사는 나라의 하층계급의 남성이 계층이동과 낭만적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상대로 여겨진다(Jones and Shen, 2008: 20).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성들의 결혼이주와 노동이주의 욕망이 중첩된다는 것이다(김민정 외, 2006; Piper and Roces, 2003). 이주여성의 결혼동기에도 노동이주와 다름없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 직업을 갖추고 싶은 욕망,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기대 등에 기인한 행위성이 나타난다(허라금, 2011: 246).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행위성이다. 그러므로 이주여

성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여성 자기 자신의 변화이며, 이주여성은 주제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실존적 삶의 양태를 스스로 구축하고 이를 변형하는 끊임없는 훈련을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분선, 2018: 26).

결혼이주여성들은 영토를 옮긴 동물들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다. 동물들이 원래 있던 영토에서 탈영토화하면 새로운 대지를 재영토화해야 한다. 익숙했던 이전의 모든 영토는 영토를 옮긴 동물들에게 더 이상 어떤 영토성도 지니지 않는다. 영토성은 내 것 즉, 내가 가진 거리 안에서의 확인 가능한 질서를 의미하며, 자아경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인식 가능한 질서로 배치되어 있다(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1980, 김재인 역, 2001:607~617). 영토성이 없는 땅을 대지라고 한다. 영토를 옮긴 동물들은 새로운 대지를 만나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식 가능한 질서로 배치하며 재영토화 해야 한다. 재영토화는 인간 사회에도 발생한다. 단일 문화권 안에서도 주체의 운동성에 따라 발생 가능하지만 문화가 이동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반드시 발생한다. 이러한 주체의 운동성은 하나의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되는’ 변화이다.

이렇듯 끊임없이 탈영토화하고 변이하는 삶이 진정한 ‘되기’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임인숙 외, 2007: 226). 이 되기의 개념은 ‘하나의 존재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렇듯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과정에서 형성된 주체를 유목적 주제라고 부르는데, 유목적 주제란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공간을 떠나 낯선 타지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기꺼이 뛰어넘고자 하는 횡단적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유목적 주체는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주제이며, 혼돈과 갈등 속에 자기를 위치시키는 것이다(변경원, 최승은, 2015: 48).

탈영토화는 필연적으로 재영토화를 불러온다. 그런 의미에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는 서로의 이면이다(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1977, 김재인 역, 1997:525). 탈영토화를 위해서는 먼저 이전 영토에서의 배치물에서 이탈하고 새로운 배치물을 구축하며 다른 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영토나 배치물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상호 배치물로 이행할 수도 있다(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1980, 김재인 역, 2001:618~621). 결혼이주여성들이 원가족을 떠났다고 해서 원가족의 질서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한국의 현가족과 상호 질서를 구축하여 재영토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재영토화를 위해 실행되는 배치는 무엇을 욕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1977, 김재인 역, 1997:28,29). 그러므로 욕망을 분석하면 배치를 알 수 있고, 배치를 분석하면 욕망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상호 배치물로 이행하며 재영토화 하기 위해서 재영토화 하는 주체는 세 가지 종합의 방법을 사용한다. 종합은 분석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운동성이다. 분석이 탈영토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종합은 재영토화를 위해 필요하다. 분석은 이미 종합된 것을 하나하나 나눠서 순수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며, 종합은 동류적인 것부터 이질적인 것까지도 연결시켜 새로운 하나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첫 번째 종합은 등위적 접속(connection)으로 더하는 방식을 취한다. 접속을 통한 종합은 유사성의 만남이며 그 자체로 변형 없이 축소하는 방식의 종합을 발생시키고, 단순하게 연결하여 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Gilles Deleuze, 1969, 이정우 역, 1999:225). 접속은 만남을 통해 생성되며 만남 자체가 생산물이자 생산하기가 접붙이기 때문에 생산의 종합이라고 한다(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1977, 김재인 역, 1997:30).

두 번째 종합은 이질적인 것들을 등록하는 방식을 취하는 이접(disjunction)이다. 이접은 한번 종합이 되면 이전의 모습으로 환원될 수 없는 특징을 취하며(Gilles Deleuze, 1969, 이정우 역, 1999:229), 전혀 새로운 것을 등록하는 종합이기 때문에 고착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진실을 표현한다(Keith. W. Faulkner, 2006., 한정현 역, 2008:120,121). 이접에는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배타적 이접과 이질적인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접이 있다(이찬웅, 2011:51).

세 번째 종합은 공존과 조정을 통해 공명을 일으키는 통접(conjunction)이다(Gilles Deleuze, 1969, 이정우 역, 1999:225). 통접이 접속과 다른 점은 종합되는 두 지층이 비유사성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며, 이접과 다른 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이다(Keith. W. Faulkner, 2006., 한정현 역, 2008:116). 그래서 접속이 ‘그리고’이고, 이접이 ‘이것 혹은 저것’이라면 통접은 ‘그리하여’에 해당한다. 출발은 이접처럼 이질적이고 결과는 접속처럼 생산적이다. 통접은 비유사성의 공명을 통한 생산적 종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를 발생시킨다. 등록은 생산을, 생산은 소비를 유발한다. 모든 생산은 이미 소비이며, 생산의 소비는 ‘쾌감’을 가져온다.

이 세 종합은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의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식된 종합을 능동적 종합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적 종합을 수동적 종합이라고 한다. 능동적 종합과 수동적 종합의 구분과 정리는 후설에 의한 것이지만(Edmund Husserl, 1968, 이종훈 역, 2018:47), 들뢰즈가 자신의 차이의 철학을 중심으로 수동적 종합을 다시 정의 내렸다. 후설은 의지를 중심으로 능동적 종합과 수동적 종합을 정의했다. 즉, 주체가 의지적으로 수용하는 종합을 능동적 종합이라고 하며, 타자와 환경에 의해 수용되는 종합을 수동적 종합이라고 하였다(Edmund Husserl, 1968, 이종훈 역, 2018:129~147). 그러나 들뢰즈는 의식을 중심으로 능동적 종합과 수동적 종합을 정의했다. 즉, 의식할 수 있는 종합은 능동적 종합이고 무의식적 종합은 수동적 **종합이다**(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1977, 김재인 역, 1997:60~63).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종합은 욕망적 생산이며 욕망 기계, 생산하는 기계의 흐름이다(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1977, 김재인 역, 1997:28,61). 그렇기 때문에 종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탐색할 수밖에 없다.

3. 연구방법

3.1. 내러티브-생애사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재영토화 과정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러티브-생애사는 생애사 연구 방법의 주체성, 시간성, 이야기성의 특징 중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술한다(전명희, 2016: 224). 내러티브-생애사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시간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시간성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의 생애가 기술된 후에, 각 체험이 이루어졌던 과거 속으로 들어가, 연구참여자가 어떤 해답을 찾았는지 해석하여, 당시 사건과 의미를 찾고 연구참여자가 구술한 맥락을 중심으로 생애를 재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체험된 생애사와 구술된 생애사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 차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규칙을 발견하게 해 준다. 이렇게 발견된 규칙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생애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박정애, 이명우, 2015: 232, 233).

내러티브-생애사라고 하여 생애사적 특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생애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애를 통해 바라보는 사회’ 혹은 ‘사회학적 시선으로 읽는 개인의 생애’에 대한 연구이다(김영천 2013:210). 때문에 내러티브-생애사가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생애를 기술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삶과 사회적 요인의 관계 속에서 생애를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요인의 관계를 해석할 사회학적 혹은 인문학적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 내러티브를 바라보기 위한 틀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재영토화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 <표 1>과 같이 연구의 단계를 정하였다.

<표 1> 내러티브-생애사 연구의 일곱 단계

단계	포스트모던 질적 연구 절차 및 연구내용
1단계	현상 설정 -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정착 과정
2단계	연구참여자 선정 - 토대연구의 연구참여자 결혼이주여성 중 이혼한 3명
3단계	자료 수집 - 토대연구의 심층 인터뷰 전사록
4단계	텍스트 쓰기 1. - 시간성을 통한 생애사
5단계	텍스트 쓰기 2. - 구술된 맥락을 중심으로 재구성
6단계	텍스트 쓰기 3. - 분석틀을 통한 생애사 기술
7단계	연구자의 자기성찰

1단계~3단계까지는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갖는다. 4단계부터 **포스트모던 질적연구**의 고유한 방법론이 나타난다. 4단계에서는 시간성을 통한 연구참여자의 생애사를 기술한다. 시간성 기반 생애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공동연구자들과 동료연구자 집단을 통해 정확한 생애사 기술인지를 평가 및 검증 받으며 수정의 과정을 갖는다. 5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기술된 생애사를 연구참여자의 구술에 나타난 맥락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연구참여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반복적으로 말했던 이야기들과 더 많이 힘들어 했던 사건들, 생애 전환점이 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맥락이 구성되도록 생애사를 기술한다. 6단계에서는 5단계에서 기술한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분석틀에 따라 사회학적으로 해석하여 생애사를 기술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주제와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생애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생각하며 ‘기술된 생애사가 독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될 것인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내러티브-생애사가 완성된 7단계에서 연구자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생애가 연구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성찰한다.

3.2.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진행한 토대연구를 위해 심층면담한 자료들을 재분석하였다. 다문화융합연구소의 토대연구 연구팀은 **200 명의** 이주민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세계를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물을 11권의 사회통합총서로 발간하였다. 토대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미국, 독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의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토대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중에서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3명을 선정하였다. 토대연구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이 토대연구 당시에 토대연구 및 기타 연구에 자료를 활용할 것을 동의하였고, 사회통합총서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토대연구 당시에 심층면담을 진행한 연구자들과 연구책임자로부터 자료 활용을 허락받아 분석하였다.

3명의 연구참여자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내러티브-생애사 연구의 일곱 단계**

연구참여자	나이	이전국적	직업	가족
A	47	우즈베키스탄	식당운영	배우자 , 딸1, 아들2
B	45	인도네시아	자영업	어머니, 아들1
C	29	캄보디아	번역	아들1

3.3. 자료분석

생애사 연구의 분석 방법에는 통합적 분석, 범주적 내용 분석, 총체적 형태 분석, 담화분석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범주적 내용분석을 적용하였다(김영순, 2018: 228~229; 김영천 2013: 226~227). 범주적 **내용 분석**은 기존의 사회과학 및 인문학적 이론에서 분석틀을 차용하거나, 개방코딩을 통해 새로운 범주를 형성하여, 연구참여자의 생애와 사회문화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방법이다(김영순, 2018:228). 이와 같은 범주적 내용 분석을 위해 들뢰즈와 가타리의 종합이론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구성한 분석틀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분석틀

	연구참여자의 욕망	한국에서 만난 욕망	종합
접속		- 연구참여자의 욕망 혹은 문화와 비슷한 한국 문화 및 상황은 무엇인가?	- 해당 공통점을 한국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였나?
이접	- 연구참여자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 혹은 욕망은 무엇인가?	- 연구참여자의 욕망 혹은 문화와 다른 한국의 문화 혹은 상황은 무엇인가?	- 해당 차이점과 그로 인해 발생한 욕망이 어떻게 포기되거나 선택되었나?
통접			- 출신국가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융합하여 새롭게 생산한 것은 무엇인가?

후설은 모든 종합이 능동적 종합과 수동적 종합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Edmund Husserl, 1968, 이종훈 역, 2018:129~138). 들뢰즈와 가타리도 능동적 종합과 수동적 종합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수동적 종합에 더욱 집중하여 설명하였다. 그래서 주로 수동적 종합의 방법으로 접속과 이접, 통접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능동적 종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 종합은 당연히 의식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접속과 이접, 통접을 능동적 종합과 수동적 종합 모두에 적용하였다. 능동적 종합과 수동적 종합의 개념은 후설의 의식적 기준과 들뢰즈와 가타리의 의식적 기준을 모두 적용하였다.

4. 재영토화 과정

4.1. 연구참여자 A : 국적은 한국, 민족은 우즈베키스탄

〈표 4〉 연구참여자 A의 종합

	연구참여자의 욕망	한국에서 만난 욕망	종합
접속	-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음: 부유하고 부러움을 사는 가 정에서 자라서, 은행원으로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누림	- 열심히 일하면 인정하고 대 가를 지불함	- 출신국과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를 받고, 출 신국을 돌아가서 아파트 4채 를 샀음
이접	- 출신국에 대한 자부심도 있 었고,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 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음. 한국에서 정착을 결정하고 국제결혼을 함	- 결혼이주여성을 자국민으로 보지 않고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는 인식이 있음. 그 결 과 무시하고 노동력을 요구 함	- 한국인이 되기 위해 온 연구 참여자 A를 돈을 주고 사온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남편의 욕망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 을 실현하기 위해 이혼을 결 정함
통접	- 자기 자녀를 한국인이자 우 즈베키스탄인으로 키우고자 함	- 연구참여자 A의 자녀들을 한국 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취급하 며 차별함	-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살도록 한국인 유치원과 학교를 보내 면서, 동시에 러시아어도 가르 침. 다문화국가가 될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양 국가 의 정체성을 모두 갖게 함

나는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⁴⁾라는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시르다리아는 천연자원과 광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아버지는 우즈베키스탄 민족이었으나, 어머니는 이씨 성을 가진 고려인이었다. 그리고 농사를 주로 하는 그 지역의 분위 기와는 달리, 부모님은 책을 좋아하였고, 교사와 공무원으로 재직하셨다.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 환경 때문에 질투의 대상이 되어 따돌림을 겪기도 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려’라고 쓰인 곳에 연필로 동그랗게 표시를 해두고 언젠가는 꼭 그 나 라에 가보겠다는 꿈을 키웠다. 초등학교와 중학교⁵⁾를 졸업하고 전문직업학교에서 회계관리를 배 왔다. 졸업 후에 은행원으로 2년 정도 일하였으나 엄마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기습

4) Syrdarya,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천연자원 및 광물이 풍부하다. (출처: <https://www.gov.uz/en/organizations/contacts/114> 검색일: 2021.09.08.)

5) 소련의 교육 체계는 3단계로 구분되었다. 초등학교는 ‘시작’ 단계로 불렸고, 3~4개의 과목을 교육했다. 중학 교는 ‘불완전한 중등교육’으로 불렸고 7~8개의 과목으로 운영되었다. 중학교까지는 사실상 의무교육이었으 며, 이 단계를 모두 마치는 데는 10~11년이 걸렸다.(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C%A6%88%EB%B2%A0%ED%82%A4%EC%8A%A4%ED%83%84> 검색일: 2021.09.20.)

한 칸에 남아 있었다.

한국에서 생활해보고 싶은 마음에 은행원을 그만두고 외국인 근로자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한국에서 일하며, 공장에서 일하는 유일한 젊은 여성이었던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편견이나 차별을 갖고 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동료의 결혼식이나 돌잔치에도 참여할 만큼 일반적인 한국인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다.

그렇게 한국에서 3년을 이하고 2003년에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할 마음으로 한국에서 번 돈으로 아파트 4채를 샀다. 그런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엄마 민족의 나라 한국은 편견과 차별 없이 외국인을 대하는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나라였다. 한국에서 가족을 만들고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후 즉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12살 연상의 농사 짓는 남편을 만났다. 첫인상은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았다. 남편은 재혼으로 전혼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당시 내 나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결혼하기엔 꽤 늦은 나이로 인식되었기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한국인과 결혼했다.

따뜻했던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일구고 싶다는 마음에 선택했던 국제결혼이었지만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남편은 나에 대해, 대학교 졸업도 못하고, 못사는 나라에서 온 여성, 결혼정보회사에서 돈 주고 사 온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당연한 듯 취급받았다. 나는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라 나를 무시하는 상황이 몹시 힘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을 수 있었다.

나는 어디서든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며 살아왔었다. 농사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나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인정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딸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도 견디게 하였다.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딸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미 전혼 자녀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에게서 태어난 딸은 안중에도 없었다. 나에게 한국은 풍요로운 꿈같은 나라였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며 살고 싶은 나라였다.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

나는 1년 동안 합의이혼을 철저히 준비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살면서 터득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서 하나씩 준비해나갔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남편에게 합의이혼 신청서와 국적신청 동의서를 건넸다. 남편은 본인이 결혼 생활 동안 저지른 행동들이 담긴 자료들을 보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남편은 딸을 줄 수 없다고 했고, 나의 국적신청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자녀 양육권을 내가 가져왔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딸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고 남편을 설득했다. 합의이혼을 하면서 국적신청이나 자녀 양육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각서를 쓰고, 전세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위자료도 받았다.

난 이제 누군가의 배우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였다. 그것은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이혼 후 딸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다녔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한 달 동안 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직장을 구하거나, 집을 구할 때도, 아이를 잠깐 맡겨야 할 때도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평일에는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식당에서 일했고, 주말에는 부잣집에서 청소나 빨래를 할 때 딸을 데리고 가서 앉혀두고 일을 했다. 요즘에야 가사 도우미 서비스가 일반적인 것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게 흔치 않아서 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로 느껴졌다. 하지만 청소 일을 하는 내 자신이 서럽거나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저 어떤 일이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다른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내 마음 안에 있었다.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이었지만 시간을 쪼개가며 나의 재능을 살려서 러시아-한국어 통역 아르바이트도 병행했다. 열심히 하다보니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생겨 2010년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회사의 사장님과 사모님은 나의 열정과 가능성을 알아봐 주신 분들로, 러시아 수출에 대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를 믿어주는 사모님 덕분에 수출 업무를 잘 해나갈 수 있었다. 2011년에는 예전에 러시아-한국어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재혼했다.

본격적으로 러시아 수출을 담당하면서 매달 러시아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석했다. 재혼 후 둘째를 임신한 상황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에 갈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다.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온전히 '나'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딸은 늘 백점을 받는 똑똑한 아이다. 걸모습은 한국인 같지만,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따돌림을 당했다. 쉬는 시간에도 같이 놀 친구가 없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재혼 후 태어난 아들들은 외국인 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태어났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는 편견과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더욱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들 모두 한국의 보통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며, 한국어에 최대한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둘째 아들의 담임교사는 아들의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외국인 부모의 노력이나 환경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

한 담임교사의 태도가 실망스러웠다. 이런 교사에게 아들이 계속 배우면 이민자의 자녀로 자부심을 갖기는 커녕,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켰고, 공부방이나 태권도에 같이 다니는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같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씩 한국 할머니를 집으로 오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한국어를 익힐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 나라로 가고 싶어 할 것을 대비해서 40년 경력의 고려인 돌보미를 고용하였다. 현재 3년 정도 함께 살면서 아이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이 지금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엄마가 태어난 나라에 가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마치 나처럼 말이다. 작년에 잠깐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는데 아이들은 사람들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며 신기해했다. 또한 내가 나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아이들과 대화하듯이 아이들도 엄마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말속에 어떠한 힘이 있는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깨달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한국에 머물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갈 사람이다. 한국은 내 아이가 자라고 내가 일하는 삶의 장소이다. 나는 그런 한국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을 때가 되면 한국은 지금과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낳고 기르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다. 그럼 차별을 하는 그 아이들이 나쁜 것인데, 한국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의 부모들을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을 탓하는 한국의 현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난 한국에서 열심히 살면서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주고 싶다.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아이들은 우즈베키스탄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간혹 병원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을 때면, 국적을 묻는 것인지 민족을 묻는 것인지 반문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이 이민자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 지금은 비록 편견과 차별의 시선이 있지만, 10년 후 나의 아이들이 대학교를 갈 것이고, 20년 후에 내 아이들이 가정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했던 행동과 삶의 방식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아이들이 설령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라도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길 희망한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민족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4.2.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초국적 삶

〈표 5〉 연구참여자 B의 종합

		연구참여자의 욕망	한국에서 만난 욕망	종합
접속	이혼 전	-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렸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함	- 돈을 벌기 위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	- 함께 공장에서 일을 하는 남편과 결혼함
	이혼 후	-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음 -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을 돕고 싶음	-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한국인 친구들이 있음 - 친정 어머니의 인도네시아 요리 솜씨로 식당을 개업하고, 장사가 잘 됨	- 다문화 가정 아이라고 차별을 받지 않음 - 식당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역할을 함
이접		- 한국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자 함. 아이를 돌보기 위해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옴	- 남편은 술주정과 폭력이 잦았고, 돈을 벌여주기보다 오히려 연구참여자 B의 직장에 찾아와 돈을 요구함	- 아이와 친정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을 결정함

나는 모국인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적으로 모자람 없이 자랐다.⁶⁾ 위로 오빠가 돌이고 막내였던 우리 삼남매는 모두 대학교를 졸업했고, 부모님께서도 그 정도의 학비 지원은 가능한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막내딸인 나는 가족들로부터 항상 사랑을 받으려 자랐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회사 경리로 2년 정도 일하다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졌다.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한국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갔다.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급여는 7배가 차이가 났다.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국을 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인도네시아에 계신 어머니께서는 인도네시아에서라면 부족할 것 없는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국적은 인도네시아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리 튀는 외모는 아니었다. 일반적인 동남아시아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피부색도 하얀 편이었다. 다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

6) 인도네시아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신생국가이다. 인구의 압도적 다수는 말레이계의 민족에 속하고, 그 대부분이 오스트로네시아어를 사용하며, 인구의 9할(87.1%)이 이슬람교도이다. 이러한 통계적 숫자를 보면 인도네시아는 민족, 사회, 종교 등이 일체화된 나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대공약수에 지나지 않는다. 통일 국가로서 짧은 역사, 섬과 바다를 포함한 전체 면적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의 민족적·문화적 배경은 대단히 복잡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다민족 국가 안에서 이중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모토인데, 반대로 말하면 도저히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 인도네시아 인구의 3.5%로 매우 소수인 편이지만, 인도네시아 경제력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다민족 국가 인도네시아’).

혀 할 줄 몰랐다. 일하면서 한국인 동료 아주머니들을 통해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배워나갔고, 일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영어를 하는 외국인 동료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는 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회사에서 나보다 9살이 많은 남편을 만났다.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했던 것은 아니지만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였다. 이런 사람과 한국에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 양가에서는 심하게 반대했다. 특히 친정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먼 한국에서 고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했다. 9살이나 나이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국적만 한국인일 뿐 사실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의 생활수준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허락을 받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방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처음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는 결혼 후 나를 많이 아껴주었다. 내가 한국음식이나 문화에 대해 잘 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임신 당시 입덧으로 인해 고생했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고향 음식을 잘 챙겨먹으라고 늘 용돈을 쥐어주시는 분이였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직까지도 안타깝다. 남아 선호사상이 강한 한국에서 아들 손주를 낳았는데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눈에 선하다. 나는 출산 후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육아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남편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다.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 일쑤였다. 회사를 무단결근한 남편은 집에 남아서 친정어머니와 아이를 괴롭혔다. 심지어 내가 일하는 회사 앞에까지 와서 돈을 달라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회사를 자주 옮겨 다녔다. 내 생활은 엉망이었다. 결국 남편이 심하게 행패를 부려서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1년여의 이혼 소송 끝에 남편과 이혼했다.

이혼 후 남편은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났지만 아이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꼬박꼬박 만남을 가지도록 했다. 만나기로 한 날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나오거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아이는 가뜩이나 아버지와의 만남이 편하지 않은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실망이 더 큰 듯 보였다.

그러다 2015년 3월에 남편이 사망했다. 심장이 원래부터 좋지 않았는데 술 때문에 더 악화되고 말았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이에게 전하기가 어려워 멀리 가서 이제 만나지 못할 것이라 고만 이야기해주었다. 아이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서운한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남편과 이혼 후 나는 돈을 벌어야 해서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가 한국에 오셨다. 아무래도 남편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도움이 더 절실했다.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집에 다니자 남는 시간이 많아지신 어머니는 근처에 사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음식을 조금씩 만들어 주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식당을 개업했다.

나의 모든 생활은 아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도 아이 학교 근처에 구했고, 식당도 학교 가까이에 문을 열었다. 회사와 식당 일 때문에 주로 아이가 혼자 하교를 해야 하는데, 학교가

멀면 이래저래 위험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한동네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도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이는 어릴 적 친구들과 지금까지도 같이 성당이나 학원을 다니고 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수영장이나 스키장에 가지고 가고 우리 집에서 어울릴 때도 많이 있다. 아들의 친구 부모와도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지내오고 있다. 여러모로 신경을 써 오고 있는 덕분에 다문화 아이라고 차별받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음식 솜씨가 좋은 어머니 덕분에 저녁이면 인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주문이 밀려들어 온다. 또한 동향 사람들과도 많이 만날 수 있으니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식당에서 만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경험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또한 바쁜 노동자들을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기도 한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육아, 병원이용, 식재료 구입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이러한 일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내가 조금이나마 동향 사람들의 위안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만족스럽다. 식당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중심 커뮤니티가 되어 가고 있다. 이를 좀 더 확장해서 인도네시아 식자재를 판매하거나, 반대로 인도네시아에 한국 식자재를 판매하는 일 등을 구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여행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마음을 먹었으니 이제 하면 된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4.3. 쓰레기 비닐봉투 여섯 개로 정리된 결혼 생활

〈표 6〉 연구참여자 C의 종합

		연구참여자의 욕망	한국에서 만난 욕망	종합
접속	결혼 전	- 캄보디아 가정과 다른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함	-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남편을 만남	- 결혼해서 한동안 기대했던 행복한 가정을 꾸림
	결혼 후	-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통번역 일을 하고 싶어 함	- '이주여성자립지원시설'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통번역 공부를 함	- 통번역 일을 하고 있음
이접		- 아내로서 인정받고 싶음	- 남편은 '가정부처'를 시키려고 한국에 데려왔다'고 하며 폭력을 행사함	- 남편의 이혼 청구로 이혼하게 됨
통접		- 아들이 아빠와 잘 지내게 하고 싶음	- 아빠가 아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음	-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어해서 만나게 해주었으며, 아들은 남자들보다 누나들을 더 잘 따름

캄보디아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히거나, 아내가 있음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한국인과 결혼한 사촌언니는 결혼생활도 행복해보이고 캄보디아⁷⁾ 친정 가족에게

7)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적은 베트남 23.5%, 중국 21.7%, 태국 10.7%, 일본 4.7% 순이며, 캄보디아 출신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하는 모습이 내심 부러웠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13살 연상의 한국인과 결심했다.⁸⁾ 남편이 재혼이라는 것을 결혼 하루 전에 듣게 되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고 그래도 잘 살 거라고 생각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남편은 정육점을 했고, 나는 정육점 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은 완전히 바뀌었다. 출산으로 망가진 나의 몸매가 싫어서였을까. 남편은 밖에 나가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예전처럼 일을 하지 못하니까 태도가 바뀌었다. 나는 밤새 아들을 돌보느라 새벽에야 겨우 잘 수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출산 전처럼 6시에 일어나 아침도 차리고, 가족들이 운영하는 정육점 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을 원했다.

‘내가 한국어를 잘한다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과 ‘아이에게도 한국어를 잘하는 엄마가 있다면 차별받지 않고 잘 자라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다문화센터 방문학 습으로 한국어를 배웠다. 센터 선생님은 나에게 학습이 빠르다며 칭찬을 해주었다.⁹⁾ 그러나 남편은 나를 센터에 보내주지 않았다. 한국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남편의 말에 대꾸하면 남편은 욕을 했고, 캄보디아 친정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말을 꺼내면 화를 냈다. 심지어 남편은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저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정육점 일을 잘 도와주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가족 중 유일한 내 편이었던 시 아버지는 육아를 위해 친정어머니를 초청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가정 내 갈등의 씨앗이 되어,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폭언을 들어야만 했다. 어쨌든 시 아버지의 도움으로 친정어머니가 한국으로 올 수 있었고,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었지만, 여전히 공부하려 갈 수는 없었다.

출산 이후부터 남편의 본격적인 폭력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랐고 원망스러웠다. 남편의 폭언과 폭력은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되었다. 폭력이 비록 피가 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아이에게 다정한 아빠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친정 부모님이 모두 계셨지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했다. 내가 경험했던 결핍으로 가득했던 그런 가족을 아이에게는 주기 싫었다. 그래서 남편이 나와 싸우더라도 아이에게만 잘해준다면 참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그냥 조금씩 남편의 성격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에게 다정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아이를 업고 있을 때도 나를 때렸다. 당시 이들은 어린 아기였지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다. 요즘 이들은 나를 안고 올 때가 있다. 마음이 약한 것도 생각이 유난히 어른스러운

2.4%이다. 그러나 출신국적별 이혼을 보면, 중국 34.9%, 베트남 28.6%, 필리핀 4.2%, 캄보디아 3.1%로 결혼에 비해 비율이 높은 편이다(통계청, 2021).

8) 국제결혼에서 남편은 재혼이면서 아내의 초혼의 비율은 10.7%로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혼인의 경우 3.2%인 것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1).

9) 각 지역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수요에 따라 방문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방문교육은 한국어, 산후지원, 자녀교육 등이다(여성가족부, 2021).

것도 다 그 때문인 것만 같다.

친정어머니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은 변함이 없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본국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남편의 저 말을 들을 때마다 두려웠다.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아이를 아빠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싫어서 계속 노력하고 기다릴 뿐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남편의 계속된 폭언과 폭력은 그저 견뎌야 할 뿐이었다. 옆에서 나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친정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나는 엄마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나를 붙잡고 울기만 하는 모습도 참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나를 밀치고 때려서 내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한국에 데리고 온 이유가 가정부처럼 일을 시키려고 했다’는 등의 폭언도 계속되었다. 내가 남편의 폭행 상황을 녹음을 했는데 그것을 안 남편은 내 전화기를 빼앗았고, 내 엉덩이를 찼다. 병원을 갈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저 서러운 마음에 친정어머니에게 이야기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다. 담당자는 남편과 나의 갈등에 대한 중재를 시도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시어머니도 나의 잘못만을 언급하며,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순 없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캄보디아로 보내지든, 아이도 같이 가든 상관없을 정도로 화가 났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다음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의 걱정스러운 전화에 나는 그동안 참아온 눈물을 쏟아냈다.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일을 울면서 이야기했고, 일단 쉼터¹⁰⁾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집에 남은 아들 생각에 내 마음은 안절부절 편히 있을 수 없었다. 아이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 내가 설령 죽더라도 아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다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센터 담당자는 조금만 기다리면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들을 만나겠다는 마음 하나로 남편 집으로 가서 크게 다치기라도 한다면 아들과의 행복한 삶은 이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 아이와 전화도 하고 만날 수 있을 것이기에, 차분하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센터의 도움으로 나는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쓰레기 비닐봉투 여섯 개에 나와 아이의 옷을 담아 보냈다. 그러나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아들이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다. 나는 쉼터에서 남편과 상담을 잘 받고, 중재를 통해서 다시 잘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이 내가 기출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뒤 이혼을 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나의 잘못으로 이혼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다. 쉼터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쉽게 승소할 수 있었다. 결국 위자료 300만원과 양육비를 매달 주기로 남편이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친정어머니는 쉼터에서 나를 보며 울기만 했다. 나 또한 이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우울했지만, 나에게에는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캄보디아로

10)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보호(숙식제공)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 지원, 자활을 지원한다. 2021년 1월 기준 전국에 6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돌아갈 때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와 아들을 위한, 그리고 캄보디아 가족들을 위해 나는 앞으로 잘 살아야 했다.

컴퓨터에서 공부를 하며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운이 좋게도 검정고시를 한 번에 합격했다. 현재는 이주여성자립지원시설¹¹⁾로 거처를 옮겨서, 사이버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다. 이주여성자립지원시설 원장님은 나에게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라며 사회복지 전공을 추천해주었다. 처음에 이혼하고 나서 매우 힘들었지만, 컴퓨터와 이주여성자립지원시설 관계자들, 그리고 나와 상황이 비슷한 이주여성들이 큰 의지가 되었다. 특히 이주여성자립지원시설은 한국에 가족이 없는 나에게 시대같은 존재였다. 나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제는 자신감이 넘치고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 같다.

남편이 나를 대했던 태도는 아들의 기억 속에도 남아 있다. 아들은 이따금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나를 꼭 안아준다. 저런 말을 할 때마다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나온다. 남편은 내가 아이를 업고 있을 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로 인해 내가 이혼을 했지만, 내 스스로가 안쓰럽고 속상하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아직은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저런 위로를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시아머니는 이혼 직후, 가까운 곳에 살면서 서로 자주 만나면서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사실 나만 생각한다면 연락을 끊고 싶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안타까운 것은 남편은 아이를 만나려 하지 않는다. 아들은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 내심 부러웠는지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 후 아들을 만나겠다는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길 원한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인지 아들은 유독 마음이 여린 편이다. 또한 남자들은 어울리기 보다는 누나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에게서는 저런 모습들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것은 아닐지 마음이 아프다.

나는 현재 통번역 일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통번역 담당자들이 6-7명 정도 있는데, 그들은 모두 한국 국적이고, 한국 이름이 있다. 나만 캄보디아 국적이고 캄보디아 이름을 사용한다. 누가 내 국적을 물어보면 약간 위축되곤 해서 어서 국적을 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나는 원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국적도 캄보디아라서 더 위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나의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11) 폭력피해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며,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직업훈련사업, 생활지원사업, 동반자녀 지원사업, 사후관리사업 등이 운영된다. 입소자 교육은 6단계 교육 매뉴얼을 통해 운영되는데, 1단계 적응과정(1개월), 2단계 기본교육과정(6~11개월), 3단계 전문취창업교육(6개월), 4단계 인턴교육(3개월), 5단계 취창업(3개월), 6단계 사후관리(1년)이다(서울특별시, 2020).

5. 결론

들뢰즈와 가타리는 접속의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종합의 방법이라고 보았다(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1980, 김재인 역, 2001:95~139). 동등하며 유사한 것들의 접속은 긍정적인 생산을 낳기 마련이다. 그러나 갈등과 문제는 유사한 종합인 접속보다 비유사성에서 만나는 이 접과 통접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연구참여자 A는 접속과 이접, 통접의 결과물이 모두 있었으며 비유사한 욕망들을 소비하여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방식의 통접의 종합으로 한국에 재영토화하였다. 비유사성의 욕망들이 그대로 종합되는 이접에서는 포함적 종합보다 배타적 종합을 추구하였다. 통접의 종합은 수동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의지적이고 능동적으로 종합하는 방식이었다. 연구참여자 B는 주로 접속의 종합을 추구하였으며 이접에 있어서는 포함적 종합보다 배타적 종합을 추구하였다. 연구참여자 B가 구술한 내터티브에서 통접의 종합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연구참여자 C는 접속과 이접, 통접의 결과물들이 모두 있었으나 주로 유사한 것들을 등위적으로 종합하는 접속의 종합으로 재영토화하였다. 이접에 있어서는 포함적 종합보다 배타적 종합을 추구하였다. 연구참여자 A, B, C 모두 이접에 있어서는 배타적 종합을 추구하였고, A는 통접을 B와 C는 접속을 주로 추구하였으며, B는 통접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접에 있어서 배타적 종합을 취하는 문제, 즉 남편과 이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A와 B는 능동적으로, C는 수동적으로 반응하였다.

배타적 종합의 원인은 A, B, C 모두 남편의 폭력이었다. 이론적 배경에서 결혼이주가 노동이주와 다름없이 경제적인 이유, 욕망의 실현을 목적으로 실행된다고 밝힌 것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모두 경제적인 이유 또는 욕망의 실현이 목적이었다. 다만, A와 C에게 결혼 자체가 경제적인 이유 또는 욕망의 실현의 목적이었다면, B는 경제적인 이유에서의 취업이 먼저였고, 결혼은 취업의 도중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때문에 A와 C는 남편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왔다’거나 ‘일 시키려고 데려왔다’는 등의 동등하지 않은 입장을 시사하는 표현을 들었으나 B는 남편의 무능과 술로 인한 폭력이었다. A와 C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이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 B는 한국 여성이었어도 발생할 수 있는 이혼의 과정이었다.

B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결혼이주 여성의 이혼이 모두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인들 사이에서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성격차이나 폭력, 무능, 이상인격 등의 문제인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이혼율과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의 격차를 온전히 문화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A와 C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는 한국 남성들의 욕망이 결혼에 대해 기대하는 이주여성의 욕망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돈을 주고 사왔다’거나 ‘일 시키려고 데려왔다’는 방식의 표현은 ‘아내’를 일꾼으로 도구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포함적 종합으로 수용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폭력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불법적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타적 종합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혼을

초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연구참여자들은 가능한 접촉적 욕망을 찾았고, 작은 빌미라도 접촉적 욕망의 기회가 있다면 연결을 시도했다. 한국 정착이라는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탈영토화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인 배타성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재영토화를 위해 접촉과 포함적 종합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을 낮추고 결혼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전, 국내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1차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율이 결혼이주남성들보다 높고, 결혼 지속기간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자 3명의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과정을 들뢰즈와 가타리의 무의식적 종합의 이론을 분석틀로 심도 있게 탐색하였으며, 재영토화 과정에 나타난 한국 남성들의 배타적 욕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도 있게 알기 어려운 이혼의 과정을 분석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재영토화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었으며, 결혼이주여성과 이혼한 한국의 남성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한국 남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를 찾기 위해, RISS, KISS, DBpia를 통해 ‘결혼’, ‘이주’, ‘여성’, ‘배우자’, ‘남편’을 교차 검색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가정과 배우자에 관한 질적 연구를 32편 발견하였으나 11편은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에 도움을 준 과정에 관한 연구였고, 19편은 결혼생활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였으며, 한편은 사별에 관한 연구였고, 가정해체에 대하여 한국인 남편의 입장에서 진행된 연구는 여성학연구지에서 발행한 “결혼이주여성과 이혼한 한국남성의 결혼 해체 경험에 관한 연구”(손미향·최희경, 2018) **한편** 뿐이었다. 결혼이주여성과 이혼한 5명의 한국인 남자를 대상으로 생애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불행했던 가족사와 보상심리’, ‘선택이 아닌 결혼’, ‘기대와 다른 결혼생활’, ‘돈으로 이용당하는 관계’, ‘권력관계의 역전’, ‘속수무책의 이혼’, ‘보답 없음에 대한 배신감’, ‘혼자 남겨진 삶을 버티기’ 8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후속 연구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남성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은 연구와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관한 실행연구를 준비 중이다.

참고문헌

-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39(1), 159-176.
- 김분선(2018). “여성 윤리 주체의 자기 체현 기술: 자기 배려주체와 성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29, 1-32.
- 김선숙, 왕경수(2021). “학력인정 중등교육과정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학습 경험: 해석현상학적 분석 접근”, *인문사회* 21, 12(3), 1963-1978.
- 김순남(2014). “이주여성들의 결혼, 이혼의 과정을 통해서 본 삶의 불확실성과 생애지도 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30(4), 189-231.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화,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임하나(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 김영순, 최승은, 황해영, 정경희, 김기화(2019).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적 삶에 관한 생애담 연구*, 경기: 북코리아.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아카데미프레스.
- 김오남(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김은주(2016). “시각 기술의 권력과 신체없는 기관으로서의 신체 이미지”, *한국여성철학*, 25, 137-163.
- 김이선(2010).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대응 양상과 실천적 함의”, *한국이민학*, 1(20), 37-66.
-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18.
- 김희주(2018). “한부모 결혼이민자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가족과 문화*, 30(2), 129-170.
- 문경연(2011).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결혼과 이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4(2), 71-112.
- 박정애, 이명우(2015). “교통사고로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트라우마 이해: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2), 227-254.
- 변경원, 최승은(2015). “이야기를 통해 타자와 교류하는 주체: Taylor의 인정 이론을 넘어 Ricoeur의 이야기 정체성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형성 가능성”, *교육문화연구*, 21(4), 37-59.
- 설동훈, 이계승(2011).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이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사회학*, 13(1), 117-147.
- 이은아(2012).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위치와 모성의 확장적 구성/재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2013).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삶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23(1), 171-214.
- 임인숙, 윤조원(2007). *사회변동과 여성주체의 도전(성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조건들에 대한 비판)*, 굿인포메이션.
- 전명희(2016). “탈북 청년의 가족관계경험에 관한 연구: 내러티브-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1, 219-250.
- 최미경(2014). “베트남 해체가족 이주여성의 홀로서기 과정에 관한 경험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5, 199-227.
- 최병두, 김연희, 이희영, 이민경(2017). *번역과 동맹: 초국적 이주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사회공간적 전환*. 서울: 푸른길

- 최연숙(2021).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경험: 주디스 버틀러의 윤리적 주체를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123, 94-107.
- 최호림(2015). “한국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동아시아의 이주: 현황과 쟁점”, *동북아문화연구*, 1(42), 35-55.
- 탁양현(2018). *들뢰즈 철학*, 퍼플.
- 허라금(2011). “페미니즘과 가족”, *새한철학회*, 10, 73-86.
- Deleuze. G. and Guattari. F.(1980). *Mille plateaux*. 김재인 역, (2001). *천개의 고원*, 새물결
- Deleuze. G. and Guattari. F.(1977). *Anti-Oedipus*. 김재인 역, (1997). *안티/오이디푸스*, 민음사.
- Deleuze. G.(1969). *Logique du sens*. 이정우 역, (1999). *의미의 논리*, 한길사.
- Freeman M.(2011): *Human Rights. Key Concepts Series*, Cambridge: Polity Press.
- Keith. W. Faulkner.(2006). *Deleuze and the Three Syntheses of Time*, Peter Lang. 한정현 역, (2008). *들뢰즈와 시간의 세가지 종합*, 그린비.
- Husserl, E.(1968). *Passive Synthesis*. 이종훈 역. (2018). *수동적 종합*. 한길사.
- Ivan Illich(1982). *Gender*, SAGE.
- Nicola Piper and Mina Rocas(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 Littlefield.
- Shen, Z, Liao, H and Jones,T.(2008). *Cost Efficiency Analysis in Banking Industries of Ten Asian Countries and Regions*, Loughborough University.
- Vasta, E., and Castles, S.(1992). *Italian Migrant Women and the Second Generation,Australia's Italians*, Sydney: Allen and Unwin.

【초록】

통계청 「2020년 혼인·이혼통계(2021.3.18)」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다문화 이혼 가정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8.7년이다. 한국인 이혼 가정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이 17.4년인 것과 비교하면 다문화 가정에서의 결혼생활 지속성이 현저히 낮다. 더불어 2021년의 외국인과의 이혼율은 6.2%이며,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4.3%,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가 1.9%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의 다문화 이혼 가정의 이혼 이유를 탐색하기 위하여, 결혼이주 후 이혼한 3명의 여성의 재영토화 과정에 나타난 갈등의 요소와 이를 극복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 A는 한국에 적응하려는 접속을 시도했으나 ‘돈 주고 사온 사람’으로 대우하는 남편의 태도에 좌절되어 이혼하였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재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남편과 결혼하는 등의 능동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폭력적으로 변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낮에 공장일과 식당일을 다 소화해내며 자녀를 키우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 연구참여자 C는 남편이 폭력적인 데도 아이를 위해 참았으나,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당하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A는 접속과 이접, 통접의 반응이 모두 나타났고, B는 주로 접속과 이접의 반응만 있었으며, C는 접속과 이접, 통접의 반응이 모두 있었으나 주로 접속의 반응이 많았다. 결혼 이주는 완전히 다른 영토로의 이동이므로 재영토화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재영토화 과정에 관한 인지가 한국의 정주민 가정과 한국으로 오는 이주민 여성 모두에게 필요하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이혼경험, 들뢰즈와 가타리, 재영토화, 내러티브 생애사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Life History in the Re-territorialization Process of Divorced Marriage Migrant Women

Kim Youngsoon · Kwon Joseph · Choi Soan · Kim Myunghee(Inha University)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20 Marriage and Divorce Statistics (2021.3.18), the average marriage period for multicultural divorced families in 2020 is 8.7 years. the average marriage period of Korean divorced families is 17.4 years. In addition, the divorce rat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2021 is 6.2%, with 4.3% of wives being foreigners and 1.9% of husbands being foreigners. In this study, to explore the reasons for divorce of multicultural divorced families when their wives are foreigners, the factors of conflict and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m were examined in The Re- Territorial Process of three women who divorced after migrant marriage. The research participant A tried to connect to Korea, but was frustrated by her husband's attitude of treating her as a 'money- buying person', and divorced, and worked to recognize herself. The research participant B showed active reactions such as marrying her husband who worked together at the factory despite the dissuade of her mother, but she divorced her husband who changed violently. The research participant C endured husband's violent for the child, but rather was divorced by the husband. Marriage migration is a move to a completely different territory, so Re-Territorialization is inevitable, and awareness of this Re-Territorial Process is necessary for both Korean residents and migrant women coming to Korea.

Key words : Migrant Women Divorce experience, Deleuze and Guattari, Reterritorialization, Narrative Life History

이 논문은 2022년 5월 20일에 접수 완료되어 2022년 6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2년 6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